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292호 [루게 제24705호] 주제 103 (2014)년 10월 19일 (일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께서 오중흙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와 제458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도로비행장에서의 리착륙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김정은 동지께서 오중흙 7련대칭호를 수여받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와 제458군부대 전투비행사들의 도로비행장에서의 리착륙비행훈련을 지도하시였다.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인 조선인민군 차수 황병서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최룡해 동지,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부장들인 오일정 동지, 한광상 동지가 동행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를 도로비행장에서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참모장인 조선인민군 항공군소장 최학성 동지가 맞이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현지에서 기상조건과 도로비행장상태를 료해하시고 직접 비행임무를 수립하신 다음 해당 작전비행장에서 여러 기종의 추격기들을 불의에 호출하시였다.

언제나 고도의 격동상태에서 당의 출격명령만을 기다려온 전투비행사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



에 맡겨진 공중전투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자면 높은 사상적 각오를 안고 훈련을 실전처럼 불리한 조건에서 많이 진행하여야 한다고 말씀하시였다.

그러시면서 앞으로 비행훈련을 더욱 강화하여 비행사들을 현대전에 능숙히 대처할수 있는 하늘의 결사대, 유능한 전투비행사로 더욱 억세게 준비시킬데 대하여 강조하시였다.

너무도 뜻밖에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출격명령을 받아안고 자기들의 비행훈련을 보여드리는 크나큰 영광과 행복을 받아안은 조선인민군 항공 및 반항공군 제1017군부대와 제458군부대 전투비

의 출격명령이 내려지자 불과 몇분안에 백두의 칼바람소리와 같은 멸적의 폭음으로 천지를 뒤흔들며 생소한 도로비행장상공에 진입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생소한 도로비행장상공에서 전투비행조법을 능숙히 수행하고 자립적인 판단과 결심으로 견시목측과 착륙을 멋들어지게 진행한 전투비행사들의 릉름한 모습을 바라보시며 우리 비행사들이 정말 비행기

를 잘 탄다고, 자신께서 바라는데로 높은 비행술을 소유했다고 평가하시였다.

특히 땅을 스칠듯 초저공으로 도로비행장상공을 통과하며 낮은 고도에서 횡전조작을 수행하는 추격기를 보시고 저런 임무는 주지 않았는데 아마 저 비행사동무가 최고사령관앞에서 자기가 련마해온 비행술을 뽐내고싶은것 같소, 얼마나 용감하오, 평시에 강도높은 비행훈련을 통하여 비행술을 부단히

높인것이 잘 알립니다라고 말씀하시며 동행한 지휘성원들에게 용감한 저 전투비행사동무를 높이 평가해주고 자신의 인사를 전해주라는 크나큰 사랑과 믿음을 안겨주시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께서는 조국의 평공방위는 날씨와 시간을 보아가며 하는것이 아니며 현대전도 가장 극악한 조건속에서 진행되는것만큼 비행사들이 언제 어떤 정황과 조건이 조성되여도 자기앞

행사들은 항공군싸움준비완성을 위하여 그토록 마음쓰시며 또다시 몸소 비행훈련을 지도해주신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의도를 심장깊이 새기고 비행훈련을 가장 극악한 조건에서 실천과 같이 강도높이 진행하여 무적의 항공작전능력을 갖추므로써 존엄높은 사회주의조국의 푸른 하늘을 금성철벽으로 지켜갈 불타는 결의를 다지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시였다

제17차 아시아 경기대회와 최근에 진행된 세계선수권 대회들에서 람홍색 공화국기를 높이 휘날린 미더운 우리의 체육선수들이 한생토록 잊지 못할 크나큰 영광을 받아안았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리설주동지와 함께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최근에 진행된 세계선수권 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들과 감독들을 만나시였다.

여기에는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서 우승한 여자축구선수들과 럭기 선수들인 김은국, 엄윤철, 리정화, 김은주, 권투선수 장은희, 레스링선수 정학진, 사격선수 김지성, 기계체조선수 김은향, 탁구선수 김혁봉,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에 이어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홍은정, 2014년 세계레스링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양경일, 제45차 세계기계체조선수권대회에서 우승한 리세광선수와 김광민 책임감독을 비롯한 감독들이 참가하였다.

황병서동지, 최룡해동지, 오일정동지, 한광상동지, 박명철동지, 김영훈동지, 오금철동지, 리종무동지를 비롯

한 당과 국가, 군대의 책임일꾼들이 함께 참가하였다.

꿈결에도 그리던 경애하는 원수님을 만나뵙게 된 선수들과 감독들의 가슴은 솟구치는 환희로 하여 세차게 설레이고있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격정에 겨워 <만세!>를 부르며 눈굽을 적시는 선수들과 감독들의 손을 일일이 잡아주시며 그들이 거둔 경기성적을 축하하시고 따뜻한 담화를 나누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에 참가하여 우승함으로써 우리 공화국의 위상을 결사옹호보위하고 공화국기를 높이 날린 선수들과 감독들에게 조선로동당과 조선민주

주의인민공화국정부, 전체 조선인민을 대표하여 다시금 열렬한 축하와 뜨거운 감사를 주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의 체육선수들이 쟁취한 값비싼 승리는 우리 당과 조국과 인민에게 드리는 가장 깨끗한 총정의 선물로 된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이번 거둔 경이적인 성과는 조선인민의 높은 존엄을 결코 싸워 이긴 위대한 승리이며 경기들마다에서 보여준 완강한 투지는 투쟁하는 우리 군대와 인민의 기상 그대로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선수들과 감독들이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대회들

을 통하여 우리 당의 체육강국건설구상의 정당성과 생활력을 실증했다고 하시면서 경기대회에서 이룩한 승전의 소식은 천만군민의 가슴마다에 필승의 신심과 락관을 안겨주었으며 부강조국건설 전투장들에서 전례없는 기적과 혁신이 일어나게 하였다고 말씀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선수들이 경기들에서 통쾌하게 승리하고 영예의 단상에 올라 장중한 애국가의 주악을 울릴수 있는것은 시상대의 높이이자 조국의 높이라는 자각을 안고 평시에 땀을 아낌없이 흘리며 이악하게 훈련하고 또 훈련해온 응당한 결실이라고 말씀하시였다.

을 떠나있어 영광의 자리에 참가하지 못했다는것을 아시고 돌아오면 꼭 만나주시겠다는 사랑의 약속을 하시였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 우리 선수들과 감독들이 앞으로도 더 높은 승리를 쟁취하기 위함에 모든것을 다 바쳐 노력함으로써 아시아의 패권, 세계패권을 다투는 국제경기들마다에서 김일성민족, 김정일조선의 존엄과 위엄을 만천하에 떨쳐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고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였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이날 제17차 아시아경기대회와 세계선수권 대회들에서 금메달을 쟁취한 선수, 감독들을 위하여 연회를 마련하시였다.

본사정치보도반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혁명활동소식을 여러 나라에서 보도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력지구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여러 나라 통신, 신문, 방송이 14일에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따스통신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김정은령도자께서 새로 일떠선 위성과학자주력지구를 현지지도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여러가지 선택으로 보기 좋게 장식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외부를 바라보시면서 대단족을 표시하시었다고 전하였다.

미국의 AP통신은 김정은령도자께서 위성과학자주력지구를 함께 새로 건설한 국가과학원 자연에너지연구소도 돌아보시었다고 보도하였다.

로씨야의 리아 노보스찌통신, 신문 《폼베르산트》, 말레이시아신문 《스타》, 싱가포르 TV《아시아소식통로》, 미국의 신문 《뉴욕 타임스》, CNN방송, VOA방송, 일본의 지지통신, 《마이니찌신보》, 《니혼게이지》, NHKTV방송도 이 소식을 전하였다.

도하인 소식을 14일과 15일 여러 나라에서 보도하였다. 만마신문 《더 글로브 뉴 라이트 오브 만마》는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김정은각하께서는 위성과학자주력지구조감도앞에서 해설을 들으신 다음 주력지구를 부감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여러가지 선택으로 보기 좋게 장식된 살림집들과 공공건물들의 외부를 바라보시면서 정말 멋있다고, 환한 풍경이라고 대단족을 표시하시었다.

그이께서는 살림집, 소학교, 초급중학교, 약국, 종합진료소, 위생원, 태양열온실 등 위성과학자주력지구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건설정형을 구체적으로 료해하시었다. 살림집들이 아담하고 생활에 편리하게 꾸러졌을뿐아니라 질 좋은 가구비품들도 일식으로 갖추어졌다고 하시면서 모든 집들에 조선로동당에서 마련한 천연색TV와 이불, 집기류들까지 놓아주면 과학자들이 편복으로 들어와 살수 있을것이라고 말씀하시었다.

가파학원 자연에너지연구소도 돌아보시었다. 그이께서는 자연에너지연구소의 여러곳을 돌아보시면서 조선로동당의 의도에 맞게 건설을 질적으로 했다고 치하하시었다.

이란의 타스님통신, 프레스TV방송, 캄보디아신문 《옥 쏘매피엣》, 인도네시아의 오케이존통신, 안따라통신, 머르레카통신, 신문 《폼베스》, 만마통신, 인디아의 신문들인 《힌두스탄 타임스》, 《타임스 오브 인디아》, 《인디안 엑스프레스》, 《에코노미크 타임스》, 인디아-아시아통신, NDTV 방송, 지 뉴스TV방송, 싱가포르신문 《스트레이츠 타임스》, 영국의 BBC방송, 이탈리아의 인터넷통신들, 나이지리아의 차일드TV방송, 우루과이신문 《라 후렌투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의 현대성 브라질위원회 인터넷홈페이지도 같은 소식을 보도하였다.

만마, 이란, 캄보디아, 인도네시아, 싱가포르, 영국, 나이지리아, 우루과이, 브라질의 출판보도물들은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다.

# 통일의 열시를 안겨주신 김정일장군님 남녘겨레가 높이 칭송

남녘겨레는 담대한 배짱과 의지, 특출한 정치실력으로 민족의 화해와 단합, 조국통일의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신 위대한 김정일장군님을 높이 칭송하고있다.

인천의 한 지식인은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의 전성기를 기어이 펼쳐놓으시려는 김정일장군님의 현명한 영도에 의해 력사적인 평양상봉들이 이루어지고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이 마련되었다고 지적하였다.

부산에 사는 한 재야인사는 집에 찾아온 동료들에게 김정일장군님께서는 조국통일을 절박한 과제로 내세우시고 하루빨리 겨레에게 통일된 조국을 안겨주시려고 끊임없는 로고를 바치시었다, 장군님께서는 통일에 대한 사명감과 굳센 신념을 지니시고 꿋꿋한 현맥을 잇고 통성변영하는 통일조국을 세우기 위한 투쟁에 온 겨레를 이끌어주시었다고 말하였다.

새 력사연구회 회원 정진철은 자기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조국통일은 우리 민족이 자주세상으로 가는 판문이며 민족적대변영의 첫걸음이다. 허나 통일제로의 길은 결코 란탄대리가 아니다. 우리 민족을 갈라놓고 통일을 부추려하는 미국, 그에 아부하여 방위영화를 피하는 보수세력 등 장애물을 제거하고 통일의 대문을 열어제끼야 한다.

이 통일의 열시를 김정일장군님께서 안겨주시었다. 민족자주! 바로 그것이다. 남북공동선언들은 김정일장군님의 투철한 자주통일외의의 산아이다.

한 통일문제전문가는 6.15공동선언의 실천강령인 10.4선언에는 우리 민족끼리 굳게 뭉친다면 민족의 번영은 반드시 이룩된다는 확신이 절제 깔려있다고 주장하였다.

통일을 원하고 민족의 평화번영을 바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손잡고나갈것이라고 선언하시었다고 하면서 그분께서는 6.15공동선언, 10.4선언에 립각한 통일로선을 한치의 드림없이 견지해나가실것이라고 한결같이 강조하였다.

한 애국인사는 김정은원수님은 김정일장군님 그대로의 숭고한 통일경로와 확고한 애국의지, 온 겨레를 한몸에 안으시는 광복의 도량과 자애의 덕망을 지니신 조국통일과 민족대단합의 위대한 구성이시다, 원수님의 기록하신 영상에서 우리 이남민들은 그분의 드림없는 통일의지와 신념을 받아안았다고 인정하였다.

남조선인민들은 민족이 낳은 또 한분의 천출위인이신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을 높이 모시고 조국통일을 위해 한몸바칠 굳은 맹세를 다지고있다.

# 리보익녀사의 진정모에 화환

열렬한 애국자인 리보익녀사 서거 55돐에 즈음하여 18일 만경대에 있는 녀사의 묘에 화환이 진정되었다.

화환 진정에는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일군들과 인민군군인들,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평양

시내 당, 정권기관 일군들, 근로자들이 참가하였다. 리보익녀사의 묘에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와 김일성군사종합대학, 근로단체, 성, 중앙기관, 시내 당, 정권기관, 공장 등의 명의로 된 화환들이 진정되었다.

참가자들은 만경대일가분들을 혁명투쟁의 길에 내세우시고 조국과 인민을 위한 성스러운 위업실현에 한생을 바치신 리보익녀사의 고결한 생애를 돌이켜보며 목상하였다.

【조선중앙통신】

#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강원도의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과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를 철원, 판교, 법동군, 고성군 봉화리에 모시었다.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와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철원, 판교, 법동군에 모셔졌다.

철원군의 여러곳에는 농사자를 잘 짓고 대중의 정신크를 불리일으켜 사회주의건설을 힘있게 다그침에 대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며 거룩한

명도의 자욕을 새기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불멸의 업적이 뜨겁게 깃들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가멸처절한 조국해방전쟁시기 판교군에 오시어 농업생산을 높이며 전선호사업을 잘함대 대한 문제를 비롯하여 군앞에 나서는 과업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외진 산간벽촌인 법동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는 군의 발전에서 지침으로 되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한평생 이민위권을 싸우며 오시어 삼오시고 인민을 위한 사랑의 길을 걸고결으신 위대한 수령님과 경애하는 장군님의 은정을 깊이 전하러는 뜨거운 마음을 안고 이곳 군들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절세위인들의 태양상 모자이크벽화를 정중히 모시었다.

고성군 봉화리에 모신 모자이크벽화 《수령님! 앞에는 최전선입니다.》에는 한몸의 위험은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불비 쏟아지는 전선길을 걸으시며 조국해방전쟁을 빛나는 승리로 이끄신 백전백승의 강철의 명장이신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천출위인이 승엄하게 형상되어 있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의 후손, 김일성동지의 전사, 제자답게 불변의 신념과 순결한 망심을 지니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두리에 일심단결하여 백두에서 개척된 주체혁명위업, 선군혁명위업을 대를 이어 끝까지 완수해나가기려는 우리 인민의 깨끗한 충정이 모자이크벽화들에 뜨겁게 어여어었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었다. 【조선중앙통신】

# 어머니당이 교육자들에게 안겨준 사랑의 금방석

##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 진행



위대한 당의 령도밑에 사회주의문명국건설의 일대 전성기가 펼쳐지는 속에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시대의 창조물로 특색있게 일떠섰다.

풍치수려한 대동강변에 떠있는 돛배마냥 쌍기둥을 이루며 하늘을 찌를듯이 높이 솟은 교육자살림집은 우리 교육자들을 참다운 애국가, 혁명가로 값있게 내세워주시고 모든 영광과 행복을 다 안겨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뜨거운 사랑의 결정체이다.

군인건설자들은 착공의 첫삽을 박은 때로부터 단숨에의 정신으로 2개 호동의 46층짜리 초고층살림집공사를 당에서 정해준 기간에 훌륭히 끝냄으로써 나라의 건설교육자부대의 위용을 남김없이 떨치었다.

어머니당의 은정속에 마련된 교육자살림집은 주체성과 민족성, 독창성과 편리성, 조형예술성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건축물이며 낱알이 발전하는 선군조선의 건축술을 온 세상에 파시하는 대걸작물이다.

고급가구와 비품들이 그분하게 갖추어졌으며 지열에 의한 행낭방체계가 도입된 멋쟁이살림집에서 대학의 교원, 연구자들은 아무런 불편도 없이 사회주의부귀영화를

누리며 교육사업과 과학연구사업에 전념할 수 있게 되었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에 의하여 대동강변에 훌륭히 일떠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이 18일에 진행되었다.

준공식장은 새 세기 교육혁명의 포성을 울려주시고 주체교육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혀주시었다 우리 교육자들을 금방석에 앉혀 온 세상이 부러워하게 내세워주시는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감사의 정으로 세차게 뿜어낸다고 하였다.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태양상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태양상이 준공식장에 정중히 모셔져있었다.

준공식장에는 《위대한 김일성-김정일주의 만세!》,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 만세!》라고 쓴 조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또한 《위대한 김정은동지를 수반으로 하는 당중앙위원회를 목숨으로 사수하자!》, 《경애하는 김정은동지를 높은 사업성으로 받드는 참된 실천가가 되자!》,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제강국으로 빛내이자!》라는 구호판들이 세워져있었다.

준공식에는 박봉주동지, 최태복동지와 김용진 내각부총리, 김수득 평양시당위원장, 책임비서, 김승두 교육위원회 위원장, 건설에 참가한 군부대지휘관들과 군인건설자, 김책공업종합대학 일군들과 교원, 연구자들이 참가하였다.

《김정일장군의 노래》주악으로 준공식은 시작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위원이며 당중앙위원회 비서인 최태복동지가 준공사를 하였다.

연설자는 교육강국, 인재강국의 명마루를 향하여 신심드높이 비약하는 우리 조국의 기상인양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이 하늘높이 치솟아오른것은 건설의 대변영기가 펼쳐지고있는 자랑한 율해를 맺내이는 또 하나의 경사이라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우리 당의 주체적건축미학사상을 완전무결하게 구현하고있는 교육자살림집은 건축형식으로부터 살림방과 생활조건, 주변환경에 이르기까지 모든것이 훌륭하게 대변영의 최상의 수준에서 꾸러졌다.

사회주의부귀영화의 정화라고 할수 있는 이처럼 훌륭한 살림집을 교육자들을 위해 일떠세워준것은 우리 당의 교육중시, 인재중시사상의 뚜렷한 표시로 된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우리 당은 과학자, 교육자들에게 훌륭한 생활조건을 마련해주어 그들이 아무런 근심걱정없이 과학연구사업과 교수요양사업에 전심전력하게 하자고 합니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김책공업종합대학을 나라의 과학기술인재양성의 최고전당으로 꾸려주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정히 받드시여 대학의 교육 및 과학연구사업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시며 교원, 연구자들에게 안겨준 살림집건설을 몸소 받기하시고 건설 전 과정을 정력적으로 이끌어주시었다.

대동강기슭의 명당자리에 몸소 터전을 잡아주시고 21세기의 공격속도, 《마시명속도》를 창조한 인민군군인들로 강력한 건설력량을 편성해주신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설계와 시공, 자재와 설비보장에 이르기까지 필요한 모든 조치들을 다 취해주시었다. 그러시고도 마음이 놓이지 않으시어 지난 5월에 이어 8월에 또다시 건설장을 찾으시어는 머지않아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들에게 세상에 내놓고 자랑할만한 살림집을 안겨주게 된다고 생각하니 피로가 다 풀린다고 하시며 공사와 관련한

귀중한 가르치심을 주시었다. 살림집의 내부방식으로부터 가구들을 놓을 위치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헤아려주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은 새살림을 꾸려 될 자식들의 생활을 따듯이 보살펴주는 다정한 어머니의 사랑 그대로이다.

연설자는 온 나라 교육자들과 인민들의 열화같은 총정의 마음을 담아 비범한 사상과 명도로 부강조국건설을 승리로 이끄시며 후대교육사업과 과학기술발전의 휘황한 미래를 열어 나가시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 최대의 영광과 가장 뜨거운 감사를 드리었다.

오늘 우리앞에는 교육사업에서 혁명적전환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21세기 교육강국, 인재강국으로 빛내이며 사회주의문명국의 새로운 개화기를 열어 나가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원, 연구사들과 일군들은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불후의 고전적로작 《새 세기 교육혁명을 일으켜 우리 나라를 교육의 나라, 인재강국으로 빛내이자》를 불멸의 대강으로 틀어쥐고 교수요양과 인재육성사업에 지혜와 열정을 다 바쳐나가야 한다.

자기 땅에 발을 붙이고 눈을 세계를 보

는 담대한 기상과 민족자존의 정신을 체질화한 지식경제시대의 선도자, 최첨단과전의 기술들을 더 많이 키워냄으로써 당의 크나큰 은정에 보답하여야 한다.

살림집과 시설물, 비품들을 알뜰히 거두고 애호관리하여 사회주의생활문화확립에서 본보기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건설부문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우리 당의 건설정책과 방침을 절대적인것으로 받아들이고 결사관철함으로써 건설부문에서의 혁신의 봉화가 사회주의건설의 모든 전선에서 대혁신, 대비약의 불길로, 조선속도창조의 열풍으로 거세차게 타날지도록 하여야 한다.

연설자는 모두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의 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 어디서나 로동당만세소리, 사회주의만세소리가 높이 울려지는 인민의 락원을 일떠세우기 위하여 더욱 힘차게 싸워나갈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준공식은 《사회주의 지기세》의 노래주악으로 끝났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교육자들이 둘러싸는 절세위인의 뜨거운 사랑에 떠받들려 멋쟁이건축물로 일떠선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을 돌아보았다.

【조선중앙통신】

# 어머니당이 교육자들에게 안겨준 사랑의 금방석

## 김책공업종합대학 교육자살림집 준공식 진행





# 청년들을 목표로 한 반동적사상문화침투책동

자식들이 구실을 못하면 집안이 망하고 청년들이 구실을 못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말이 있다.

나라의 전도와 민족의 운명을 결정하는 데서 청년문제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는 것이다.

오늘 청년문제를 중시하고 그에 응당한 국가적관심을 돌리는 나라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면에 청년문제를 홀시한 결과 미국의 싹을 보지 않으면 안되는 나라들도 적지 않다.

혹력의 완부상으로 변한 일부 나라들의 사태만 보아도 청년들이 내란과 분열을 앞장서서 부추기는 돌격대가 되고 있다. 몇몇해나 국제사회를 괴롭히고있는 정치적혼란과 무질서의 배경에도 역시 청년문제가 깔려있다.

리기와 인일, 범죄와 타락으로 시들어가는 청년들을 두고 인류의 난문제라는 탄식이 흘러나오는것은 우연한것이 아니다. 천만금의 재부라도, 현대과학기술로 해결할수 없는 문제가 바로 청년문제이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청년들은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려야 합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을 단호히 짓부셔버리는 현시기 청년들을 나라와 민족의 기둥으로 키우는데서 나는 중요한 문제의 하나이다.

제국주의자들이 사상문화침투책동에서 노리는 기본대상은 다름아닌 새 세대 청년들이다.

제국주의자들은 청년들을 사상정신적으로 변질시키면 총과 대포로써도 쉽게 이룰수 없을것이라고 탄식하고있다. 역사적으로 세계제국을 실현하기 위한 민족의 지배주의적책동은 두가지 방향으로 진행되였다. 하나는 다른 나라와 민

족을 군사적으로 침략하는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상정신적으로 왜해시키는것이였다.

지난 세기까지만 하여도 다른 나라에 대한 자주권유린에서 제국주의자들이 군사적침투를 위주로 하였다면 오늘날에는 반동적인 사상문화가 침략의 주역이 되고있다.

새 세기에 들어와 제국주의자들은 청년들을 대상으로 반동적이고 퇴폐적인 부르주아사상문화를 주입시키기 위해 보다 교활하고 악랄하게 책동하고있다. 급속히 발전하고있는 현대과학기술, 정보기술수단을 동원한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은 더욱 로골적으로 그리고 더욱 도수높게 감행되고있다.

오늘날 정보기술은 인류가 달성한 모든 과학기술성공품의 하나이다. 인터넷이 출현한 후 그 사용이 세계적규모로 활발해지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1995년부터 현재까지 1600만명에 불과하였던 인터넷사용자는 2009년에 15억명을 돌파하였다 한다. 특히 정보기술에 대한 청소년들의 의존도는 날로 높아지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은 이것을 악용하여 세계의 정보흐름을 장악통제함으로써 저들의 세계제국화를 가장 철저히, 가장 손쉽게 이루어 버리고 있다.

정보기술수단을 통해관리하던 다른 나라를 정치, 경제, 군사적으로 통제할수 있으며 지배주의의야망을 손쉽게 달성할수 있다는것이 미국의 타산이다.

이명 《스텔스인터넷》과 부르는 《지하인터넷》과 그 단장설이다. 《스텔스인터넷》은 일의 곳에서 임의의 시간에 리용할수 있다. 미국은 《스텔스인터넷》운용을 위해 이미 막대한 자금을 투자하였고 여기에 각이한 전문가들을 동원시키고있다. 미국은 인터넷을 통하여 미국식가치관과 부르

주사상문화, 허위남조자들을 대대적으로 류포시켜 여러 나라들에서 사회적혼란과 정치적불안정을 조성하며 청년들에게 반동적이고 썩어빠진 미국식 생활문화와 양식을 주입시키려 하고있다. 과학기술의 창조물인 인터넷을 저들의 범죄적목적에 악용하는 미국의 책동은 지금 세계적인 항의와 규탄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에서 중요한것은 또한 문학예술, 언론을 통한 모략전이다.

퇴폐적인 영화들과 각종 록물들을 대대적으로 제작하여 류포시키고있다. 기본과거는 반체제자적인 나라들과 청년들이다.

미국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은 사회생활의 모든 영역을 포괄하는 하나의 전면전쟁을 방불케 하고있다. 여기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는것은 방송모략전이다.

1996년부터 개시된 자유아시아방송은 1997년부터 우리 공화국을 대상으로 대대적인 모략방송전과를 벌이기 시작하였다. 지금은 방송프로그램에서 조선말방송이 큰 몫을 차지하고있다.

군사적침투에 앞서 방송모략전에 열을 올리는것은 미국이 항시적으로 써먹는 수법이다. 자유아시아방송이 시작된 당시에 분석하여 한 국제문제전문가는 《그때로 말하면 미국이 반공화국전쟁책동에 광분하던때였다. 이것은 자유아시아방송이 처음부터 미지배층의 반공화국전쟁기에도 따라 창설되였다》는 말을 내놓는다.》라고 말하였다.

미국과 서방은 한때 이진 소련과 동유럽사회주의나라들을 붕괴시키는데서 특유한 맛을 본 방송전전의 효과범위를 계속 확대하고있다. 몇몇년 서방이 페르시아위성통로들을 개설한데 대해 이란문화상은 《이것은 서방이 이란에

서 부패한 서방식생활양식을 조장하고 청년들을 타락시키며 저들의 사상을 강요하려는데 목적이 있다.》라고 까뻐했다.

청년들부터 먼저 반동적인 사상독소와 썩어빠진 부르주아생활양식에 걸은 정신적불구자로 만들고 그들을 앞세워 반체제주의의 길로 나가는 나라들을 안으로부터 허물어버리자는것이 미국의 전략적기초이다.

자라나는 새 세대가 썩어빠진 부르주아사상문화에 물젖으면 정신도덕적으로 타락될것이다. 건전한 사상과 도덕을 떠나서 자주적인간에 대하여 말할수 없고 나라와 민족의 번영에 대하여 생각할수 없다. 극도로 안일해지고 색성적이며 변태적인 부르주아생활풍조, 사상문화는 청년들의 건전한 의식을 마비시키고 그들을 오직 개인의 리익과 돈밖에 모르는 속물로 끌어들여지게 하며 나라와 민족을 배반하는 행위로 서슴없이 감행하게 만든다.

지난 시기 제국주의의 사상문화침투에 문을 열어놓은 동유럽나라들에서 청년들이 사회주의제도를 뒤엎어놓고 자기 조국과 인민을 배반하는데 앞장섰던 사실이 그것을 말해주고있다.

새 세대가 사상정신적으로, 도덕적으로 병든 나라와 민족에는 사실상 전도가 없는 중담에는 쇠퇴몰락을 면할수 없다.

청년들을 노린 부패한 부르주아사상문화는 이처럼 극히 잔인하고 그 후과는 매우 치명적이다.

오늘도 제국주의자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의 마수가 청년들에게 뻗쳐지고 있다.

진보적나라들의 청년들은 저들의 사상문화침투책동의 본질과 위험성을 똑바로 꿰뚫어보고 그것을 짓부셔버리기 위하여 적극 투쟁하여야 할것이다.

전 영 희

# 새 작전계획은 랭전확대계획

이달말에 미국의 워싱턴에서 미국남조선안보 협의회가 열린다고 한다. 이것도 《년례적》이라는 명분밑에 진행되는 것이다. 문제는 토의되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는것이다.

외신들은 지금 미국과 남조선이 《북조선의 핵과 탄도미사일위협》에 공동으로 대응하는 새로운 작전계획을 수립했다고 전하고있다. 그러면서 이번 협의회에서 새 작전계획의 개념과 원칙에 대해 합의하려 한다고 보도하고있다. 량자 사이에 합의되면 다음해에 작전계획을 최종안정 한다는것이다.

이로써 이번 미국남조선안보협의회가 우리 공화국을 힘으로 압살하기 위한 또 다른 작전계획을 수립하는 모의판으로 될것이라는것이 명백해 지고있다.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가 여러차례 진행한 전술로케트탄발사에 대해 소형핵탄두를 탑재하기 위한 시험발사사라니 뛰니 하고 겹고들면서 그에 공동으로 《정밀대응》하겠다고 날뛰고있다.

우리의 전술로케트탄시험발사는 자위를 위하여 진행한것이다. 미국과 남조선이 끊임없이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으면서 북침전쟁광기를 부리는데 대처하여 우리는 최신과학기술적으로 도달한 전술로케트탄을 개발하였다.

미국과 남조선의 새 작전계획수립책동은 우리의 자위적조치들에 대한 로골적인 도전이며 조선반도를 핵전쟁의 위험속에 더욱 깊숙이 빠뜨리기 위한 모략행위이다.

그런데 미국남조선의 새 공동작전계획수립과 관련하여 생각되는 문제점이 있다. 이미 미국과 남조선은 우리의 《핵과 탄도미사일위협》에 대처한다는 구실밑에 핵선제타격 계획인 《맞춤형역제전략》이라는것을 만들어내어 작전계획으로 발전시켜왔다. 미국과 남조선이 올해 봄에 강행한 《키 리졸브》, 《독수리》 합동군사연습에 바로 《맞춤형역제전략》이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과 남조선괴뢰들은 우리에게 대한 핵선제타격계획을 보다 구체화하려 하고있다.

미국, 남조선이 공동으로 수립원생한다고 하는 작전계획은 말이 공동작전계획이지 기본은 미군의 타격 및 감시, 방어전투력을 포괄적으로 통일하기 위한 미국일방의 작전계획이라고 할수 있다. 남조선은 미국의 강박에 못겨 그에 발맞추어 춤을 출뿐이다.

그것은 새 작전계획이 어떤 전투력을 넘겨주고 수립되고있는가를 보면 잘 알수 있다. 여기에는 1000km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진 CX-벤트레이더를 핵심으로 하는 고고도미사일방위체계 즉 《싸드》와 고고도무인정찰기인 《글로벌호크》, 지상감시정찰위성, 군사정찰위성 등 미국이 보유하고있는 첨단전투수단들이 다 들어있다. 미국이 우리의 《단, 중, 장거리탄도미사일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라고 하지만 그 많은 첨단전투수단들을 굳이 남조선에 배비할 필요가 없는것이다.

미국이 새 작전계획을 다그치는 목적은 결코 남조선의 《방위》를 위해서가 아니다. 미국의 미사일방위체계는 우리보다도 주변에 있는 대국들을 겨냥한것이다. 미국이 1000km이상의 탐지거리를 가진 CX-벤트레이더를 한사코 남조선에 배비하려는 리유도 바로 주변대국들을 군사적으로 압박, 위협하기 위해서이다.

미국 주변대국들이 군사력강화에 힘을 넣으면서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타고하러 하고있다. 이에 대해 미국은 불안해하고있다.

미국은 남조선은 저들의 미사일방위체계에 깊숙이 끌어들이 북남관계의 발전을 가로막으며 주변나라들과의 대결과 전략적경쟁에 유익하게 써먹고 하고있다. 이것은 조선반도에 형성된 핵전투수단 아시아태평양지역으로 더욱 확대하려는 미국의 흉심의 바로이다.

이렇게 놓고볼 때 미국남조선의 새 공동작전계획은 핵전쟁확대계획이라고 말할수 있다.

21세기의 랭전에서 패자는 누가 될것인가. 그것은 반드시 미국이 될것이다. 왜냐하면 조선의 약의 원동, 부흥의 왕조로서 국제무대에서 강한 지판을 받으며 쇠퇴몰락하고있기때문이다. 앞으로 그 속도는 더욱 빨라질것이다.

리 경 수

# 인민을 위해 헌신하는 조선로동당

조선로동당창건 69돐에 즈음하여 영근군정치연구회협회가 7일 인터넷포럼에 글을 올렸다.

글은 조선로동당 김일성-김정일주의를 자기활동의 지도적지침으로 삼고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지적하였다.

위대한 김일성주석께서 창건하신 조선로동당은 주체사상, 선군사상의 기치따라 승리적으로 전진하여왔다. 김일성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을 주석의 사상과路線을 끝까지 받아들이는 사상적순결

# 영국단체 인터넷에 글 게재

체로 튜튼히 다지시였다. 조선로동당은 지난 세기 국제로동운동에서 발생한 복잡한 사태와 오늘날까지 지속되고있는 제국주의침략세력의 압력속에서도 사소한 오류나 동요도 없이 사회주의기치를 굳건히 고수하여왔다.

세계가 경탄하는 조선로동당의 위력은 바로 단결에 있다. 이 단결은 김일성주석에 의하여 조동해 마련되고 김일성동지에게 의뢰 한 하나의 사상과路線을 도덕의리에 기초한 공고한 조

# 김일성주석과 김정일동지의 사상과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는 조선로동당 제1비서인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조선에서는 인민사랑의 대화원이 펼쳐지고 강성국가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세계적인 변혁들이 창조되고 있다.

오늘 조선인민은 조선로동당을 어머니당이라 부르며 절대적으로 믿고 할까지 따를 의지로 충만하여왔다. 이러한 당이 언제나 필승불패 한다는것은 력사에 의하여 증명되고있다. 【조선중앙통신】

#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지지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 제34돐에 즈음하여 베인, 오스트리아단체들이 성명을 발표하였다.

베인 《김정일장군 탄생》전북정대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된다.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것을 성스러운 민족적의무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6.15 통일시대를 마련하시어 우리의 통일을 위한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셨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

# 베인, 오스트리아단체들이 성명 발표

연방방향이아말로 조선의 통일을 전체 조선민족의 의사와 요구, 리익에 맞게 평화적으로 공명정대하게 실현할수 있게 하는 가장 현실적인 통일방안으로 된다.

김일성주석의 조국통일위업을 빛나게 실현하는것을 성스러운 민족적의무로 내세우신 위대한 김정일영도자께서는 6.15 통일시대를 마련하시어 우리의 통일을 위한 밝은 전망을 열어놓으셨다. 경애하는 김정은원수님께서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조국통일

# 10월 10일 우리는 김일성주석께서 고려민주련방공화국창립방안을 제시하신 34돐을 맞이하게 된다.

조선로동당의 영원한 총비서인 김정일장군의 현명한 영도에 의하여 6.15북남공동선언과 10.4선언이 채택되게 되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인 김정은은 각계층에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유훈을 받들어 조선의 자주적평화통일을 위해 온갖 실험을 기울이고계신다. 이제에는 남조선당국이 평화통일을 위해 대화마당에 나서야 할 때이다.

리 경 수

# 로씨야 나치즘을 배격할것을 호소

로씨야대통령 율라지미르 푸틴이 최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나치즘을 반대하여 투쟁할것을 호소하였다.

그는 나치즘의 《영화》를 반대하는것은 공동의 의무라고 하면서 력사를 잊지 않는것이 앞으로 유럽에서의 평화와 안정을 수호하고 복리를 증진시키는데 도움이 될것이라고 밝혔다. 제2차 세계대전 전의 력사를

# 미국주도의 《반레로련합》의 공습만행 규탄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의 대사업단장인 알리 아크바르 벨라히가 12일 한 외교적상에서 지역나라들에 대한 미국주도의 《반레로련합》의 공습만행을 규탄하였다.

《반레로련합》이 테러분자들을 소탕한다는 구실밑에 지역나라들을 마구 공습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그 누구도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습만행을 중동지역에 대한 령도들의 지배주의적정책의 산물로 확인하면서 지역나라들이 외세의 부당한 군사적간섭을 물리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미국주도의 《반레로련합》의 공습만행 규탄

이란이슬람교혁명지도자의 대사업단장인 알리 아크바르 벨라히가 12일 한 외교적상에서 지역나라들에 대한 미국주도의 《반레로련합》의 공습만행을 규탄하였다.

《반레로련합》이 테러분자들을 소탕한다는 구실밑에 지역나라들을 마구 공습하고있는데 대해 언급하고 그는 그 누구도 이를 승인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그는 공습만행을 중동지역에 대한 령도들의 지배주의적정책의 산물로 확인하면서 지역나라들이 외세의 부당한 군사적간섭을 물리치기 위한 시급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 라틴아메리카 나라들에서

라틴아메리카나라들이 14일 소년로동을 군정할때 대한 선언을 채택하였다.

지역의 25개 나라 대표들이 선언에 조인하였다. 선언은 소년로동을 완전히 없애기 위해 지역나라들사이의 협조를 더욱 강화할데 대해 강조하였다.

현재 라틴아메리카 지역에는 소년로동자수가 1250만명에 달한다고 한다. 르완다에서 르완다에서 최근 제

# 육을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국내 모든 체육단체에서 전도유망한 선수후비들을 적극 찾아내어 그들의 전문선수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이 진행되게 된다.

정부에서 체육부문에 대한 국가적투자를 늘이기로 하였다. 보츠와나에서 보츠와나에서 최근 나라의 광업발전에 힘을 쏟고있다.

나라에서는 오프로판산과 크와베판산을 비롯한 여러 광산들에 필요한 원료를 안정하게 보장하기 위해 국영원유조달회사를 새로 설립하였다. 팔레스이 나라의 주요자급원천으로 되고있다 한다. 싱가포르에서 싱가포르에서 올해 3.4분기

# 인디아에서

인디아에서 11일 농촌지역의 현대화를 위한 계획을 발표하였다.

계획에 따라 2019년까지 2500개의 농촌마을의 면모를 일신시키게 되며 국회의원들이 이 사업을 지원할 때에 이 사업에 적극 참여할 것이라고 한다.

# 가나에서

가나에서 올해 2.4분기에 경제가 6.9%로 성장하였다. 이것은 1.4분기에 비해 0.2% 더 늘어났기이다 한다.

15일 이 나라 통계국이 이에 대해 밝혔다.

# 필리핀에서

필리핀에서 최근 에블라의 전과와 그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정부는 이 전염병에 대한 연구사업을 심화시키는데 선진적인 관심을 돌리고 있다. 또한 서아프리카지역에서 오는 령행자들에게 대한 위생검역사업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인 조치들을 취하고있다.

# 자본주의의 도덕적부패성은 가리울수 없다

자본주의정체들과 그 대변자들이 저들의 비위에 거슬리는 나라들의 《인권문제를》 거들며 외위대는 소리가 있다. 그것은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의 개성의 《자유》와 《의사》를 발양시키기때문에 《인권》이 충취해 보장되고있는것이이다. 그러면서 그들은 사회주의도덕에 비한 자본주의도덕의 《우월성》에 대해 운운하며 온갖 미소와 사회악으로 가득찬 자본주의사회를 미화시키려고한다.

하지만 그 어떤 미사리구를 다 늘어놓아도 자본주의가 안고있는 불치의 병, 부르주아도덕의 반동성과 부패성은 절대로 가리울수 없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도덕적부패성은 착취제국사회의 위기의 병이며 온갖 이하며 모든것이 지배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극도에 이르게 된다.》

도덕은 량심에 의하여 자각적으로 준수되는 사회적행동규범으로서 사회를 유지하고 공고발전시키는데 없어서는 안될 필수적요소이다. 계급사회에서 도덕은 철저히 계급적성을 띤다. 해당 사회의 도덕이 진보적이거나 인기가 하는것을 가르는 자각대기는 인민대중의 자주적요구와 리해관계이다. 이것을 떠난 어떤 기준이란 있을수 없다.

도덕은 인민대중을 위하여 복무하는 진정한 사회주의사회에서는 사람들사이 에 동지적단결과 협조, 서로 돕고 이끄는 도덕관계가 확립되어 사회발전을 힘있게 추진한다. 하지만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르주아도덕이 지배적인 자리를 차지하

며 그것은 특권계층의 리익을 옹호하고 근로인민대중을 억압하는데 복무하는 반동적이며 부패한 도덕이다. 리해관계로서 대립되어있고 인민대중이 정지의 대상으로 되고 자본가들의 요구와 리익이 절대화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인간의 진정한 도덕은 사라진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르주아사상,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기초한 반동적부르주아도덕이 판을 치고있다.

개인주의는 사람들로 하여금 남을 위하여 사회를 위하여 헌신할것을 요구하는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자신의 리익과 개인적목적만을 추구하게 만든다. 집단의 리익을 개인의 리익도 없고 존재도 없다. 그러나 개인주의에 기초한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람들은 자기의 개인적인 리익만을 앞세우며 그것을 절대적인 우위에 놓고있다. 그들은 자기의 사사로운 리익과 공명을 위한것이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있다. 남의 이름과 고통을 대해서는 눈길 하나 까딱하지 않으며 남이 죽는 말든 개의치 않고있다. 오히려 자기 개인을 위해 남을 희생시키는것을 있을수 없는 일로, 옹양단언으로 여기고있다.

《개인의 리익은 신성불가침이다.》, 《너를 죽여야 내가 산다.》, 이것이 바로 극단적인 개인주의에 기초한 부르주아도덕이 사회전반을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 사는 사람들의 그릇된 사관관과 관점이다. 이로부터 사람들은 자기의 리익적목적만을 위한것이라면 그야말로 다른 사람과 집단의 리익을 해치는 길에도 서슴없이 뛰어들다.

자본주의정체들과 그 대변자들은 이것을 개성의 《자유》로 묘사하면서 그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개인의 리익을 우선시, 절대화하는것은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과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조장하여주고 그러한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꾀변에 불과하다. 이것은 오히려 사회적혼란과 도덕적부패를 심화시켜 사회발전을 억제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르주아도덕은 그 본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사람들을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으로 부추긴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 승망이가 되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탈하는것이 현자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존재하고있는 생존관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하는것이 도덕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고있다. 실제 사회생활전반이 그런 방향으로 거침없이 흐르고있다.

제부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권모술수를 쓰며 서로 물고뜯는가 하면 사기와 협잡 등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거러잡혔이 특히 자연스럽게 감행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권력의 자리는 곧 골목등은 산업을 공인되고있다. 때문에 부르주아정당들과 정객들은 권력쟁탈을 위해 호상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테러도 서슴치 않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권력쟁탈 전 과정에 정객들이 반대파들의 레토의 회색대를 휘둘러대는 허다하다.

부르주아사회, 부르주아도덕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패타락한 생활풍조가 범람하며 그것은 반동적지배

를 또 하나의 증거로 내리고 비난하였다. 그는 이러한 불법무도한 행위는 전세계 이슬람교도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강조하였다. 【조선중앙통신】

나를 동부부드스에 있는 알 아크사사원에 뛰어들어 이슬람교도들에게 충사성을 가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이것은 이스라엘의 극단주의적본성을 보여주

을 개성의 《자유》로 묘사하면서 그 《의사》를 존중해주어야 한다고 떠벌이고있다. 개인의 리익을 우선시, 절대화하는것은 자본가들의 무제한한 탐욕과 근로대중에 대한 착취를 조장하여주고 그러한 행위를 도덕적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꾀변에 불과하다. 이것은 오히려 사회적혼란과 도덕적부패를 심화시켜 사회발전을 억제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부르주아도덕은 그 본성으로부터 불가피하게 사람들을 약육강식의 생존경쟁으로 부추긴다. 인간은 인간에 대해 승망이가 되어야 한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강탈하는것이 현자이다.》, 이것이 자본주의사회에서 존재하고있는 생존관이다.

자본주의사회에서는 이렇게 생활하는것이 도덕적인 행동으로 간주되고있다. 실제 사회생활전반이 그런 방향으로 거침없이 흐르고있다.

제부도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 권모술수를 쓰며 서로 물고뜯는가 하면 사기와 협잡 등 비도덕적인 행위들이 거러잡혔이 특히 자연스럽게 감행되고있다. 자본주의사회에서 권력의 자리는 곧 골목등은 산업을 공인되고있다. 때문에 부르주아정당들과 정객들은 권력쟁탈을 위해 호상 비난전에 열을 올리고있으며 저들의 목적달성을 위해 테러도 서슴치 않고있다. 자본주의나라들에서 권력쟁탈 전 과정에 정객들이 반대파들의 레토의 회색대를 휘둘러대는 허다하다.

부르주아사회, 부르주아도덕이 지배하는 자본주의사회에서는 부패타락한 생활풍조가 범람하며 그것은 반동적지배

리 학 수

# 국제체육소식

부에노스 아이레스마라톤 경기대회가 12일 아르헨티나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세계 여러 나라와 지역의 1만여명의 선수들과 애호가들이 참가하였다. 2014년 핀란드컵국제겨울경기대회가 9일

# 핀란드에서

핀란드에서 9일 핀란드의 에스보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로씨야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로씨야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로씨야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로씨야 선수들이 참가했다.

# 핀란드에서

핀란드에서 9일 핀란드의 에스보에서 진행되었다. 이번 경기대회에는 로씨야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로씨야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로씨야 선수들이 참가했다. 이번 대회에는 로씨야 선수들이 참가했다.